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목차

I. 길고양이의 이해

1. 길고양이 정의	8
1) 길고양이 정의	8
2) 고양이의 구분	8
2. 길고양이 돌봄의 목적	9
1)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	9
2)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9
3) 갈등 최소화	10
4) 공중 보건	10
3.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성	11
1) 수명	11
2) 번식	11
3) 먹이 활동	11
4) 영역(활동 범위)	11
5) 의사소통	11
6) 배변 활동	12
7) 사회성	12
4. 길고양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13

II. 길고양이 먹이주기

1. 원칙	16
1) 책임감	16
2) 규칙성	16
3) 청결성	17
2. 급여 대상	17
3. 급여 방식	18
1) 급여빈도	18
2) 정해진 시각	18
4. 먹이 급여 장소	19
1) 적절한 먹이 급여 장소	19
2)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장소	22
5. 급여량	24
1) 적정 급여량 판단	24
2) 과잉 급식 방지	24
3) 신선한 물 공급	24
6. 청결 관리	25
1) 밥그릇 치우기	25
2) 밥그릇 내 급여	25
3) 밥그릇 세척	25
4) 주변 관리	25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II. 길고양이 중성화

1. 중성화 개요	28
1) 정의	28
2) 필요성	28
3)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유의점	29
2.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군집 관리	30
1) 주기적인 개체 파악	30
2) 신규 개체 중성화	31
3. 중성화 추진 주체	32
4. 중성화 대상	34
1) 대상	34
2) 무게	34
3) 연령 : 성 성숙 전	34
4) 수유 여부	34
5. 중성화 시기	35
1) 시행 시기	35
6. 중성화 과정	36
1) 포획 전 준비	36
2) 중성화 후 방사	37

IV. 길고양이 건강관리

1. 인수공통전염병	40
1) 예방 및 대처 방법	40
2. 길고양이 주요 질병	41
1) 예방 및 대처 방법	41

V. 길고양이 구조 및 고양이 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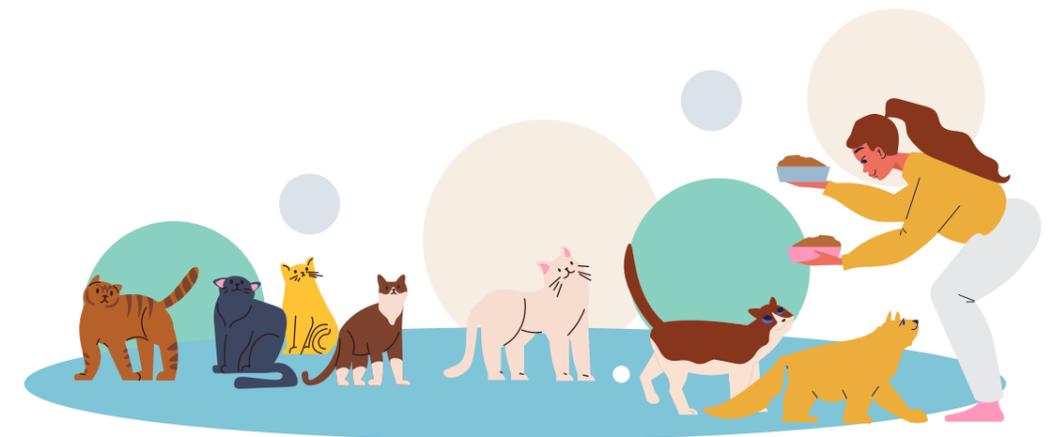
1. 길고양이 구조 및 고양이 입양	44
1) 길고양이 구조 신청,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44
2) 고양이 입양 전 셀프 체크리스트	45

VI. 갈등 및 학대 대응

1. 길고양이 돌봄 관련	48
1) 밥자리를 자동차 근접한 곳에 마련한 경우	48
2) 고양이 집으로 인한 화재 발생	49
3) 밥자리 청소 미비	49
4) 배설물 문제	50
5) 고양이의 습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50
2. 돌보미 위협, 동물학대 관련	53
1) 돌보미 협박 및 폭행	53
2) 돌봄 자제 요청	53
3) 길고양이 학대	54
4) 독극물 살포	54
5) 길고양이 학대 영상, 경험 인터넷 공유	54
6) 길고양이 위협	55

VII. 참고 자료

1.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58
2. 길고양이 주요 질병	59
3. 참고문헌	61



서문

길고양이는 도심 등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길고양이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존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알고, 지켜야 할까요?

첫째, 길고양이들을 중성화 해주세요.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길고양이들의 생존과 건강을 지켜 주지만, 중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길고양이의 번식력 및 개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면, 반드시 중성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개체수 조절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임신·출산 부담 최소화, 관련 질환 예방, 발정기 울음소리 및 영역표시 완화를 통해 고양이의 복지개선은 물론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새끼 고양이의 생존율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만큼, 이러한 열악한 길 위의 생활이 세대를 거듭하지 않도록 반드시 중성화 해주세요.

둘째, 올바른 돌봄을 실천해 주세요. 여전히 길고양이 밥자리를 두고 길고양이 돌보미들과 돌보미가 아닌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밥그릇을 안전한 곳에 두고 다 먹은 후에는 밥그릇과 주변을 바로바로 깨끗이 치워서 길고양이들이 마음 편히 밥을 먹도록 해주세요. 겨울집 등의 설치물은 동의를 받고 설치함이 바람직합니다. 또, 설치한 기간에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고양이의 건강과 주변 미관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길고양이를 폭행하거나 독극물 살포 등의 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길고양이와 돌보미, 모든 시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 돌보미 인터뷰 및 우수 지자체 사례,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여 제작하였으며, 법적 준수사항이 아닌 자율적 실천을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돌봄 활동 및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참고하고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

I. 길고양이의 이해

1. 길고양이 정의	8
1) 길고양이 정의	8
2) 고양이의 구분	8
2. 길고양이 돌봄의 목적	9
1)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	9
2)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9
3) 갈등 최소화	10
4) 공중 보건	10
3.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성	11
1) 수명	11
2) 번식	11
3) 먹이 활동	11
4) 영역(활동 범위)	11
5) 의사소통	11
6) 배변 활동	12
7) 사회성	12
4. 길고양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13

I 길고양이의 이해

1 길고양이 정의

1) 길고양이 정의

-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고양이를 지칭합니다.

법적 정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2) 고양이의 구분

- 고양이는 거주환경, 야생성 등에 따라 들고양이, 길고양이, 유기·유실 고양이, 반려 고양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비록 사는 환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의 고양이들은 모두 '고양이' (영명 domestic cat, 학명 *Felis catus*) 로서 동일한 생물 종입니다.
- 반려묘가 유실·유기 되는 경우 길 위 생활에 적응하여 길고양이가 될 수 있으며, 길고양이와 외출묘,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간 교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체수 증가 위험 때문에 길고양이의 중성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 반려 고양이 중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는 '외출묘'나, 유실·유기 고양이가 길고양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집고양이의 중성화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길고양이 돌봄의 목적

1)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

- 주기적으로 먹이, 물을 제공하면 길고양이의 생존율과 복지 상태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길고양이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쓰레기봉투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중성화를 시행하면 생식계 관련 질환 예방, 새끼 고양이 희생의 악순환 차단 등의 효과를 가져와 길고양이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와 복지

- ❗ 길고양이의 길 위 생활은 여러 질병, 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은 암컷 길고양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암컷 고양이의 중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하면 번식기에 일어나는 발정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개체 간의 싸움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새끼 길고양이들은 태어나더라도, 여러 질병 등으로 인해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새끼들의 희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중성화가 필요합니다.

2)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

- 정부는 인도적 방식으로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번식능력이 사라지면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및 군집 안에 있는 길고양이 대다수를 중성화하여야 합니다.
- 길고양이를 돌보며 중성화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중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돌봄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의 책임

- ❗ 길고양이 중성화는 길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길고양이 돌보미분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직접 시행하기도 합니다.
- ❗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길고양이 중성화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갈등 최소화

- ▣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면 발정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영역 다툼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길고양이로 인한 사람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 ▣ 길고양이 밥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개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길고양이 돌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돌보미와 돌보미가 아닌 주민 간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길고양이에 대한 우호적 인식도 증가할 것입니다.

4) 공중 보건

- ▣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를 피하고, 남은 사료와 빈 그릇이 방치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의 적절한 길고양이 돌봄을 실천하면 주변 환경의 위생과 미관이 개선됩니다.
 - ▣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간의 전염병 확산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 ▣ 밥을 주는 시간 동안 고양이를 살피며 적절한 시기에 질병에 대한 대처를 한다면 고양이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 ※ 길고양이는 쥐의 개체수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 예방

- ❗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 중성화 시행, 위생관리, 적절한 밥자리 선정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3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성

1) 수명

- ▣ 길고양이는 교통사고, 질병, 열악한 날씨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반려 고양이에 비해 수명이 짧습니다.

2) 번식

- ▣ 고양이는 두 달의 짧은 임신기간을 가지며 주로 봄과 가을 사이에 출산하고 한 번에 3~5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생후 4~6개월이 되면 번식이 가능해집니다.

3) 먹이 활동

-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먹이를 주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타납니다.

4) 영역 (활동 범위) 1), 2), 3)

- ▣ 고양이는 자신의 행동반경을 지키려고 하는 영역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행동반경이 다양해지고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합니다. 먹이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는 행동반경이 좁고 다른 고양이와 함께 영역을 공유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반면에 먹이 자원이 적으면 고양이의 행동반경이 넓어집니다.

5) 의사소통

- ▣ 울음소리는 고양이들의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입니다. 짹짹기 철이나 싸움 시 특히 큰 소리를 내며,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 ❗ 중성화를 시행하면 싸움과 짹짹기를 위한 울음(발정기 울음소리)을 매우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1) Kim, J. S., Kim, J. U., Jeon, J. H., Lee, J. K., & Lee, W. S. (2018). Radio-tracking survey of stray cat home range in a suburban area: Non-exclusive use of home ranges in stray cats (*Felis catus*). *Mammal study*, 44(1), 69-75.

2) Nutter, F. B. (2005). Evaluation of a trap-neuter-return management program for feral cat colonies: Population dynamics, home ranges, and potentially zoonotic diseas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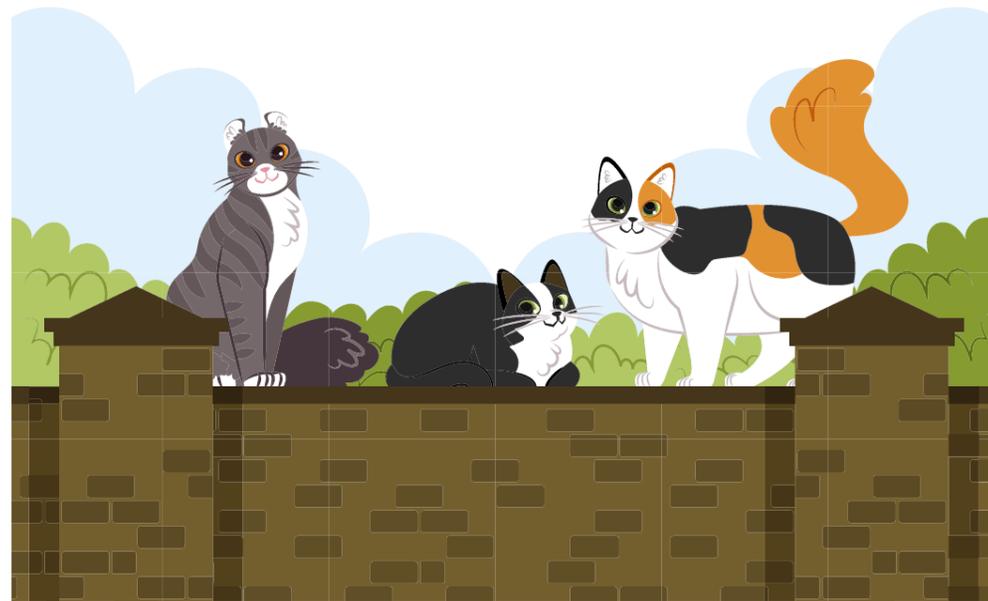
3) Schmidt, P. M., Lopez, R. R., & Collier, B. A. (2007). Survival, fecundity, and movements of free-roaming cats. *The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71(3), 915-919.

6) 배변 활동

- ▣ 고양이는 자신의 배변을 흙이나 모래에 묻어 은폐하는 습성이 있어서 배변 장소로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밭을 선호합니다.
- ▣ 하지만 도심 환경에서 마땅한 배변 장소를 찾지 못하면 배설물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 모래나 흙이 없는 도시 환경에서는 화단, 아스팔트, 어린이 놀이터 등에 배설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주민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 사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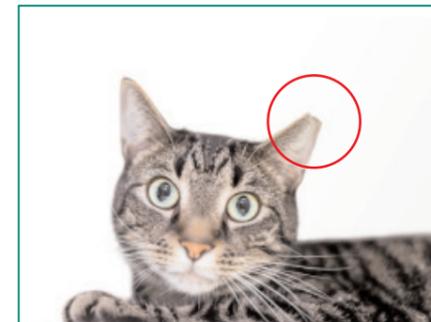
- ▣ 고양이는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로 진화되었으나 서식 환경에 따라 집단생활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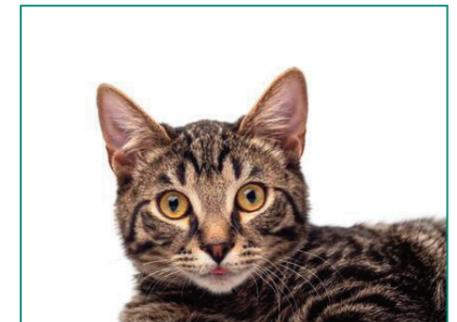
4 길고양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 길고양이 돌봄 결정 과정

- ❗ 생명을 돌보는 일은 한두 번의 먹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길고양이를 지속해서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① 길고양이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 인식표나 해당 지역의 분실 신고를 확인하여 유실·유기 고양이인지 확인하고 주인이 있는 경우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 ※ 국가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서 유실·유기동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nimal.go.kr)
- ② 길고양이라면 치료나 중성화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 중성화 되어있지 않은 길고양이는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거나 진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성화된 고양이: 귀 끝을 조금 잘라 표시한다.



중성화 되지 않은 고양이

- ③ 이미 다른 돌보미에 의해 돌봄을 받는 길고양이인지 확인하여 중복된 먹이 급여를 최소화합니다.
- ④ 적절한 밥자리를 찾는 등 본격적인 돌봄 계획을 세웁니다.
- ⑤ 돌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돌봄 활동을 시작합니다.

▣ 돌봄 계획 수립

-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들을 파악하고 돌봄 계획표를 이용하면 체계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어 길고양이들의 건강 유지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다른 길고양이 돌보미와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돌보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길고양이 돌보미가 아닌 일반 시민의 협조를 구할 때도 돌봄 계획표가 도움이 됩니다.

길고양이 돌봄 계획표 (예시)				
돌보미		공동돌보미 지역연합체		
기간		위치		
대상개체				
이름	성별	외형 특징	TNR 여부	예상연령
1		 		
2		 		
3		 		
먹이 급여 시간				
TNR 계획				
구충 계획				
기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I

II. 길고양이 먹이주기

1. 원칙	16
1) 책임감	16
2) 규칙성	16
3) 청결성	17
2. 급여 대상	17
3. 급여 방식	18
1) 급여빈도	18
2) 정해진 시각	18
4. 먹이 급여 장소	19
1) 적절한 먹이 급여 장소	19
2)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장소	22
5. 급여량	24
1) 적정 급여량 판단	24
2) 과잉 급식 방지	24
3) 신선한 물 공급	24
6. 청결 관리	25
1) 밥그릇 치우기	25
2) 밥그릇 내 급여	25
3) 밥그릇 세척	25
4) 주변 관리	25

II 길고양이 먹이주기

1 원칙

1) 책임감: 적절한 돌봄 및 중성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 길고양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돌봄 활동도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돌봄을 시작하면 길고양이가 지역 사회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밥 주기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며, 해당 개체의 중성화,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등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이 때문에 돌보미가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지속 가능한 돌봄 방식, 돌봄 개체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다른 돌보미나 단체들과 함께 돌봄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2) 규칙성: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적당량의 먹이를 줍니다.

- 길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음식과 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대상 개체를 파악하고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돌보미들 간의 소통을 통해 먹이를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 길고양이 쉼터, 급식소 등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 “이곳에 오는 고양이는 ○○(단체명 등)이 적절한 양의 먹이를 주면서 지속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고양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길고양이 돌봄에 규칙성이 필요한 이유

- 길고양이를 돌볼 때에도 반려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듯 각 개체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돌봄 대상 개체들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고 각 개체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 길고양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때는 ‘먹이를 먹는 때’입니다. 먹이를 주는 곳에 몇 마리가 오는지, 어떤 개체가 오는지, 다친 곳이나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길고양이의 건강 및 복지 상태를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3) 청결성: 밥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먹이는 음식물이 흐트러지지 않는 밥그릇에 담아 주고 급여 후 밥그릇, 쓰레기, 배설물 등을 바로 수거하는 등 위생, 공중 보건에 신경 써야 합니다.
- 길고양이의 위생과 주변의 청결 유지는 고양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 급여 대상

- 먹이를 줄 때는 중성화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먹이를 먹는 고양이 중 중성화 되지 않은 개체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중성화를 실시합니다.

<참고 1 : 길고양이 인식개선 방안 조사 결과>

-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 현황 조사에서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길고양이 갈등이 적은 모범지역과 갈등이 많은 갈등 지역 모두 먹이 급여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나 중성화율이 높은 경우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곳 모두의 시민들이 중성화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을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지역 사회의 갈등 완화와 효과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중성화되었거나, 할 개체를 대상으로 밥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모범지역(33명)	갈등지역(32명)
먹이 급여 인식	찬성 75.8%	찬성 62.5%
먹이급여시 중요항목	중성화 48.5% > 주민동의 33.3%	중성화 46.9% > 밥자리청결 28.1%
캣맘 활동관련 특이사항	캣맘이 적극적인 협조하여 TNR 실시하고, 급식소 운영	캣맘과 지역 주민 간의 밥자리 문제로 인한 갈등 존재

(출처 : 서울시 '21년도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길고양이 중성화는 돌보미가 직접 진행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I. 길고양이 중성화'의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3 급여 방식

1) 급여 빈도

- ▣ 1일 1회 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먹이를 주면서 길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밥그릇에 먹이가 항상 채워져 있으면 돌보고 있는 개체수를 확인하기 힘들고 고양이의 상태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정해진 시각

- ▣ 매일 같은 시간에 급여합니다.
- ▣ 급여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먹이와 밥그릇을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적절한 먹이 급여 방식 Q&A

- ◎ 고양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먹이를 놔두어야 할까요?
 - 아니요. 먹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해충, 쥐 등이 생길 수 있어 고양이 건강 및 공중 보건에 좋지 않습니다. 비둘기, 너구리와 같은 다른 동물들이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겨져 있는 먹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고 남겨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고양이는 하루에 조금씩 먹이를 나눠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연구⁴⁾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만 먹이를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주장 및 조건⁵⁾도 있습니다.
- ◎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급여하면 먹이를 먹지 못하는 고양이가 생길 것 같아요.
 - 처음 시도할 때는 고양이가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면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과 장소에 고양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이점이 더 많습니다.
-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먹이를 주어야 자신이 관리하는 고양이의 수와 상태를 파악하기 쉽고 보다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위생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Feeding indoor cats just once a day could improve health," ScienceDaily, ScienceDaily, 23 September 2020
 5) Cornell Feline Health Center

4 먹이 급여 장소

1) 적절한 먹이 급여 장소

- ▣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가 좋습니다.
- ▣ 밥자리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밥자리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

- 1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밥을 주는 장소에 따라 법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 2 밥자리를 특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은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분쟁(무단적침몰로 간주,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여기서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조물 자체 및 그 주변 땅으로서 관리자가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 해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 3 밥자리를 설치한 뒤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4 한편, 밥자리를 누군가 임의로 철거한다면, 철거한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절도죄의 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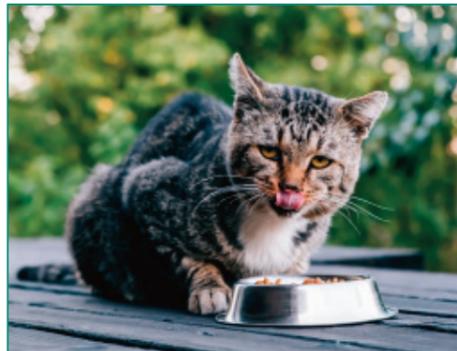
■ 적절한 급여 장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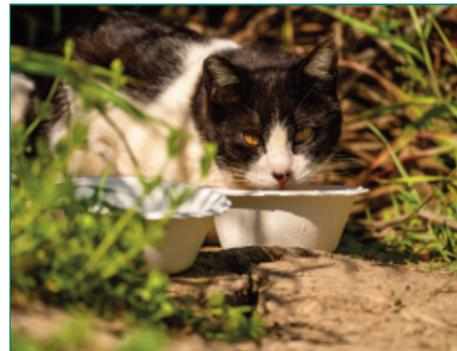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급여 후 수거하는 경우 사용이 권장되는 밥그릇



세척 등 관리가 쉬운 밥그릇



일회용 종이 용기(길고양이 섭취 후 수거·폐기)



■ 부적절한 급여 장소 예시



공용장소에 설치되었으나 관리가 미흡한 급식소



차량 아래에 먹이를 두면 차량 파손과 고양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



땅바닥에 먹이를 급여하면 길고양이의 위생이 저하됨



봉지밥을 급여하면 고양이가 장폐색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음



방치된 빈 밥그릇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2023년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2)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장소

1) (지하) 주차장과 차량 하부는 피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변은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 다칠 수 있고, 차량 표면 스크래치 등과 같은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차량 출발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2) 도로 주변도 피해야 합니다!

도로 주변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로드킬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3)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나 감염 취약자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먹이를 먹는 곳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모래나 흙에 배변합니다. 따라서 모래 놀이터나, 병원 등 노약자들이 있는 곳 근처는 먹이 장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조류와 설치류 등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길고양이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유의 사항

1) 길고양이 급식소와 일반 밥자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밥자리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곳을 말하며, 그 중 길고양이 급식소는 '고정형' 밥자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구조를 마련해 그 안에 밥그릇과 물그릇을 둡니다. 고정형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 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정형 (길고양이 급식소)



비고정형 (급여 후 수거)

2) 길고양이 급식소에서는 사료를 오래 놔둬도 괜찮을까요?

지자체 급식소의 경우 별도의 운영 기준이 있다면 그를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계속 놔두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지붕이 있는 급식소 내부에도 너구리, 비둘기, 쥐, 까치 등이 들어와 길고양이 먹이를 섭취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야생동물과 길고양이가 접촉하도록 하면 진드기 등의 외부기생충이나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급식소이더라도 고양이들이 일정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청소 및 사료 교체가 필요합니다.(예시: 1일 1회). 시민 돌봄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 및 물 급여와 밥그릇 세척, 소독 등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5 급여량

1) 적정 급여량 판단

- 고양이가 먹는 것을 지켜보고 한 번에 먹는 만큼만 급여합니다.
- 고양이가 일일 권장 섭취량만큼 먹지 않는다면 다른 곳의 먹이 급여 장소나 다른 돌보미에게서도 사료를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는 만큼만 제공하고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고양이 일일 권장 섭취량 예시>

체중	3kg	4kg	5kg
정상체중	45~50g	55g~60g	65~70g
과체중	35~40g	45~50g	50~55g

종이컵 1컵에는 건식사료 70g 정도가 들어갑니다.

- 사료 제조사의 1일 섭취 권장량과 먹이를 먹는 길고양이 수를 고려하여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한 마리당 종이컵 반 컵(35g) ~ 한 컵(70g)만 주도록 합니다.

※ 반려 고양이의 하루 필요 권장 열량(kcal)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몸무게(kg)} \times 30 + 70\text{kcal}] \times \text{계수(중성화된 고양이 1.2, 일반적인 성묘 1.6)}$$

2) 과잉 급식 방지

- 고양이가 지나치게 살이 찌면 민첩성이 떨어지고 생존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고양이에게 적절한 양의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양을 급여합니다.

3) 신선한 물 공급

- 길고양이에게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합니다.
- 먹이를 줄 때,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을 잘 먹지 않는 개체의 경우 습식 사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청결 관리

1) 밥그릇 치우기

- 먹이를 주고 남은 밥그릇, 캔 등의 용기는 곧바로 치워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고양이 먹이를 다 먹을 때까지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바로 먹이와 밥그릇을 수거합니다.
- 밥그릇을 방치하면 길고양이 간 질병 전염, 세균 번식, 악취 등의 원인이 되므로 길고양이 건강에 해가 되고 공중위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 ※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의 가이드에서는 30분 후 수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밥그릇 내 급여

- 고양이의 질병 감염 방지 및 위생을 위해 바닥에 먹이를 급여하지 않고 반드시 밥그릇에 담아 급여합니다.



먹이 급여 후 밥그릇을 치우지 않은 사례와 바닥에 먹이를 급여한 사례 예시

(출처: 서울특별시, 2023년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3) 밥그릇 세척

- 먹이를 줄 때마다 밥그릇을 세척하는 것이 좋지만, 밥그릇을 매번 세척하기 어렵다면 일회용 용기를 통해 급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 일회용 용기에 급여한 경우에는, 급여 후 즉시 용기 수거 및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밥그릇과 물그릇 모두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세척할 때에도 사람 그릇과 분리하여 세척해야 안전합니다.
- ※ 하절기에는 모기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물을 자주 갈아주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물그릇을 측면까지 닦아 주어야 합니다.

4) 주변 관리

-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밥자리, 급식소의 위생관리는 필수적입니다.
- 위생과 청결을 위해 항상 주변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합니다.
-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II

III. 길고양이 중성화

1. 중성화 개요	28
1) 정의	28
2) 필요성	28
3)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유의점	29
2.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군집 관리	30
1) 주기적인 개체 파악	30
2) 신규 개체 중성화	31
3. 중성화 추진 주체	32
4. 중성화 대상	34
1) 대상	34
2) 무게	34
3) 연령 : 성 성숙 전	34
4) 수유 여부	34
5. 중성화 시기	35
1) 시행 시기	35
6. 중성화 과정	36
1) 포획 전 준비	36
2) 중성화 후 방사	37

III 길고양이 중성화

1 중성화 사업 개요

1) 정의

■ 길고양이 중성화(Trap-Neuter-Return, TNR)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Trap) 거세·불임 시술 등 생식능력을 제거(Neuter)한 후 방사(Return)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필요성

- 반복되는 번식과 출산을 방지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합니다.
- 고양이의 생식계통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웃 주민들의 불편함이 감소합니다.
 - 번식을 위한 울음소리, 영역 다툼 등과 같은 행동들이 줄어듭니다.
 - 수컷들의 영역표시 행동인 소변 분사 행동이 감소합니다.
- 길고양이에 대한 지역 사회 수용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중성화 수술을 받아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길고양이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우호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역 사회 수용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이 지속될 때 길고양이의 건강 및 복지 상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와 갈등 상관관계

- 길고양이 밀도가 높을수록 갈등이 많아지며 중성화를 통해 밀도가 줄어들면 갈등도 같이 감소합니다.
 - 2021년도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결과, '갈등 지역'은 갈등이 없거나 적은 '모범 지역' 길고양이 서식밀도가 높고 중성화율이 낮았습니다.

구 분	길고양이 서식현황			
	최대밀도(마리/km ²)	중성화율(%)	자묘율(%)	
일반지역	150	49.0	13.7	
수용도 조사지역	모범지역	138.1	54.3	6.5
	갈등지역	273.3	47.5	16.1

(출처 : 서울시 '21년도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

중성화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 ① 암컷 고양이
 - 정기적으로 오는 발정기에 커다란 울음소리를 냅니다. 주로 새벽에 울음소리를 내며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입니다.
 - 주변에 다른 암컷과 수컷 고양이와 함께 있는 경우 마킹, 싸움, 큰 울음소리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성화되지 않은 암컷 고양이는 자궁염, 유선종양, 유선염, 자궁축농증, 자궁내막염에 걸릴 위험이 더 큽니다.
- ② 수컷 고양이
 - 잦은 싸움으로 인한 소음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 싸움으로 인해 상처와 같은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커지고, 물림을 통해 전파되는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FIV)나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증(FeLV)와 같은 질병 감염 확률이 높아 집니다.
 - 강한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므로 냄새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 교미할 암컷을 찾기 위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 중성화되지 않은 수컷 고양이의 경우 호르몬으로 인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고환암 등에 걸릴 위험이 더 큽니다.

3)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유의점

-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서로 번식이 가능한 한 지역(무리)에서 최대한 많은 개체가 중성화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는 모든 고양이는 중성화되어야 합니다.
 - 인접한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들도 중성화 되어야 합니다.
- 첫 번식을 시작하기 전에 중성화해야 개체수 조절 효과가 큽니다.
- 고양이를 포획했다가 놓아주게 되면 길고양이의 포획 틀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 다시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히 관찰한 후 중성화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고양이만 포획하여야 합니다.
 - (예 : 육안으로 보기에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고양이는 포획하지 않습니다.)
- 반려 고양이라도 질병 예방 및 원치 않는 임신 방지를 위해 중성화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는 고양이 유기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성화한 고양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는 왼쪽 귀 끝을 살짝 잘라주는 표식을 남겨놓습니다. 주변에서 왼쪽 귀 끝이 살짝 잘린 고양이가 있다면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입니다. 또한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돌보미에 의해 보호,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2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군집 관리

1) 주기적인 개체 파악

- 주기적인 개체수 파악은 길고양이 중성화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길고양이 번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중성화하면 주민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돌봄 계획표⁶⁾를 활용하여 길고양이 돌보미들이 돌보는 고양이의 수, 암수 비율, 자묘 비율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집 중성화 절차>

- 메모나 사진을 통해 개체수를 파악합니다.
- 돌보미를 파악하고 협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지역 주민에게 포획 계획을 알립니다.
- 중성화를 진행할 수의사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6) 본 가이드라인 15페이지의 돌봄계획표 참고

고양이 개체수 군집 관리 프로그램 계획

- 개체수 군집 관리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길고양이의 데이터 수집, 해석, 계획, 개입설계, 실행,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역 내에서 길고양이 돌보미들에 의한 개체수 군집 관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텍사스 동물보호 연합 돌보미 등록 (Web)

2) 신규 개체 중성화

- 새로운 길고양이가 유입되면 먼저 유실·유기 고양이인지 확인합니다.
- 길고양이인 경우, 중성화 여부를 확인하여 중성화가 안된 개체의 경우 신속하게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효과적인 집중 TNR

- Gunther(2022)의 연구에서는, 12년 동안 실험 지역 및 인접한 지역 모두에서 길고양이 TNR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70% 이상의 길고양이가 TNR 되었을 때, 실험 지역의 길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개체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연속적이면서 지속적인 고강도의 TNR을 해야만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호주의 도시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TNR이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개체군의 69% 중성화와 입양이 병행되었을 때 개체수가 감소하였습니다(Tan et al. 2017).
- 미국에서 실시한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71~94%의 고양이들이 중성화되어야 개체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Foley et al. 2005).
- Nutter(2005)의 연구에서는 적어도 75~80%가 중성화되어야 개체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길고양이 단체 'Alley Cat Allies' 군집 관리

-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어 대략적인 고양이 개체수를 파악합니다.
- 한 군집의 개체들을 최대한 많이 중성화하기 위해 포획 날짜를 2~3일 정도로 길게 잡습니다.

일본의 길고양이 군집 관리- 지역 고양이 정책

- 일본의 '지역 고양이' 정책은 중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줄이기를 전제로, 길고양이 돌보미- 일반 시민- 정부가 협업 활동을 수행하는 돌봄 방법입니다.
- 길고양이 돌보미는 중성화를 포함한 책임 있는 돌봄을 실시하며, 일반 주민들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는 길고양이 학대 및 유기 방지 등의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 결과 길고양이 돌보미들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 길고양이의 공생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 중성화 추진 주체

■ 추진 주체

- 길고양이 돌봄에 앞서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한 중성화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길고양이 돌보미는 본인이 돌보는 고양이의 건강 상태, 임신 여부 등을 파악하여 중성화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변 돌보미들과 논의하여 본인이 돌보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길고양이들을 군집으로 중성화하는 것이 개체수 조절과 갈등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돌보미가 직접 중성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의 중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성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길고양이 돌보미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중성화되지 않은 길고양이가 있다면 지자체에 연락하여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자체는 중성화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포획자 및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 중성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 돌보미, 길고양이 돌보미가 아닌 주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계획 하에 중성화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협력하면 중성화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 대상 고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고양이의 신체적 특징 등을 파악한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해당 길고양이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신청 시에 전달하는 것이 중성화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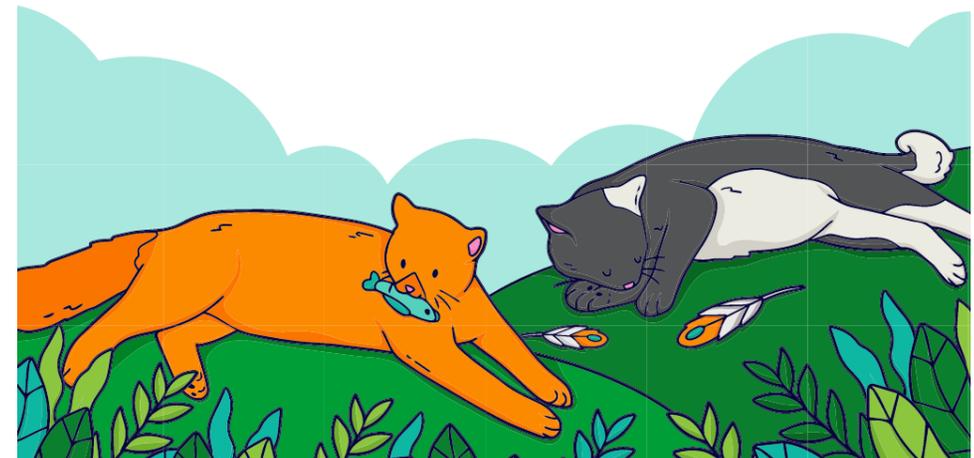
< 동물보호 담당 부서 확인 방법 >

국가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 부서

국번 없이 120 (다산 콜센터)



길고양이 TNR 신청



4 중성화 대상

1) 대상 : 중성화되지 않은 모든 길고양이

! 중성화 제외 길고양이

- 몸무게 2kg 미만
-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

2) 무게

■ 국내에서는 2kg 이상의 고양이부터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령

■ 고양이의 발정은 생후 4~9개월부터 시작되고 연중 번식이 가능합니다. 새끼 고양이의 경우 최초 번식 이전에 중성화하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돌보고 있는 무리에서 새끼 길고양이가 발견되면 중성화 일정을 바로 계획해야 합니다.

4) 수유 여부

■ 수유하는 어미 고양이의 경우 새끼들의 생존율 증가를 위해 중성화 진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 고양이의 경우 대략 4~8주령 사이에 모유 섭취가 줄어들고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 이후에는 새끼 고양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으므로, 새끼의 먹이 섭취 방법 등을 살펴 어미의 다음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고양이의 중성화

○ 임신한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길고양이는 야생성과 강한 경계심을 지닌 경우가 많아, 마취 없이는 상태를 상세히 살피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마취 후에 임신 상태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마취제가 투여되었으므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새끼와 어미의 복지와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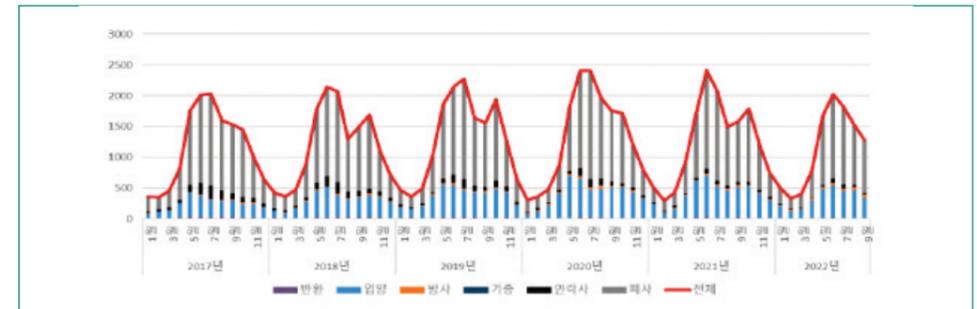
5 중성화 시기

1) 시행 시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에 따르면 여름과 겨울에도 유의 사항을 지켜 연중 중성화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암컷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에 가장 적절한 계절은 늦가을~초겨울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기에는 계절성 다발정 동물인 고양이가 발정을 멈추기 때문에 중성화 시 고양이의 부담을 가장 완화(절개 부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어지는 다음 번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중성화를 연중 시행하여 새로운 새끼 고양이의 탄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출처: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서식 현황 조사)

!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새끼 고양이의 수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길고양이의 번식이 겨울을 제외하고 연중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장마철 · 혹서기 · 혹한기에 포획 시 주의 사항

- ① 장마철에는 포획 시 포획 틀에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② 혹서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해야 합니다.
 -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
 -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할 것
 -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하고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 것
- ③ 혹한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해야 합니다.
 -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을 설치할 것
 -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

장마철 · 혹서기 · 혹한기에 방사 시 주의 사항

- ① 장마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② 혹서기에는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해야 합니다.
- ③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된다고 예보된 날에는 방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6 중성화 과정

1) 포획 전 준비

■ 중성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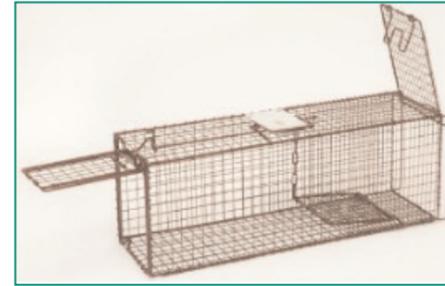
- 길고양이의 상태(중성화 여부, 수유기, 임신 등)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 주변에 내가 돌보지 않는 다른 고양이들이 있다면 해당 돌보미나 지역 돌보미 협회 등과 협조해 군집 중성화를 추진합니다. (군집 관리 프로그램 계획)

■ 먹이 주기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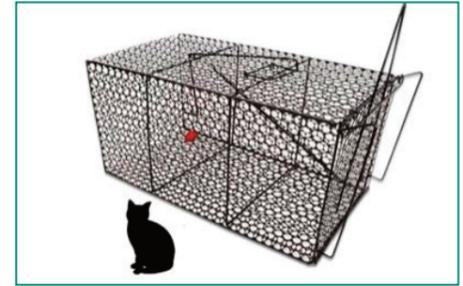
- 먹이를 24시간 정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쉽게 트랩에 설치한 먹이를 먹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포획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 포획 틀은 안전한 발판식 통 덮이 좋습니다.

- ※ 포획 틀 설치 후에는 담요나 가림막 등으로 포획 틀을 덮어두는 것이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안전한 발판식 통 덮



부적절한 먹이걸이식 통 덮



포획틀을 설치한 모습



포획틀을 덮어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줌

■ 포획 틀의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이 덮은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위한 고양이 포획용 틀입니다.
이 틀을 옮기거나 가져가지 마세요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 포획 중입니다.
- 중성화는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 및 이해 부탁드립니다.
포획자, 담당자 000, 연락처 000
※ 지자체 사업인 경우 지자체 명(00 구청)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추가

2) 중성화 후 방사

-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포획한 장소에 풀어줘야 합니다.
- ※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제자리 방사를 하여야 하고, 방사할 때는 길고양이가 방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후 포획 틀의 입구를 열어 방사합니다. 이때 포획 틀의 입구는 도로와 반대 방향으로 열려있어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V

IV. 길고양이 건강관리

1. 인수공통전염병	40
1) 예방 및 대처 방법	40
2. 길고양이 주요 질병	41
1) 예방 및 대처 방법	41

IV 길고양이 건강관리

1 인수공통감염병

1) 예방 및 대처 방법

- 건강한 상태로 보이는 고양이도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원인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길고양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고양이가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바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물리거나 핏대를 때면 즉각적으로 상처 부위를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소독을 한 후,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돌봄 활동을 하며 인수공통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고양이와 직접적인 접촉을 자주 하는 직군이거나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 미리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노약자, 임산부 등은 돌봄 활동 시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명칭	감염경로
고양이 할퀴병	감염된 고양이가 핏대를 물었을 때 전파
피부사상균증	감염된 동물 또는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SFTS 바이러스 보유 진드기에게 물릴 때 또는 감염된 개와 고양이의 혈액과 접촉했을 때
톡소플라스마증	감염된 고양이의 배설물과의 접촉 (배설물 속 기생충이 난포낭 상태일 때에 전파)
광견병	광견병에 감염된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감염 동물의 타액에 사람의 상처에 노출

2 길고양이 주요 질병

1) 예방 및 대처 방법

- 고양이 사이에 전염되는 질병은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공유하면 서로 옮기기도 합니다. 용기의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줍니다.
- 한 장소에 너무 많은 고양이가 모이면 먹이 활동, 그루밍, 투쟁 등으로 전염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절한 수의 고양이 그룹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양이 질병에 대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수의사의 상담 및 진료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동물병원 상담 시 고양이의 증상 사진 또는 동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예방접종과 구충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반 반려 고양이의 경우 3차에 걸친 기본 예방접종 후 매년 추가접종을 실시하지만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길고양이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예방접종 1회를 맞는 것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의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진드기와 같은 외부기생충과 몸속에 사는 내부기생충, 심장 사상충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시키거나 피부에 바를 수 있습니다. 구충제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돌보는 길고양이와 돌보미의 상황에 맞추어 수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V

V. 길고양이 구조 및 고양이 입양

1. 길고양이 구조 및 고양이 입양	44
1) 길고양이 구조 신청,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44
2) 고양이 입양 전 셀프 체크리스트	45

V 길고양이 구조 및 고양이 입양

1 길고양이 구조 및 고양이 입양

- ❗ 길고양이 구조 및 입양은 길고양이의 자생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 판매를 목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1) 길고양이 구조 신청,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 새끼 고양이들이 발견되더라도, 어미가 잠깐 먹이를 구하기 위해 떠났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습니다.
- 새끼 고양이를 선불리 만지는 경우, 어미가 자신의 새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릴 수 있으므로 귀엽다고 만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어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잠깐씩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미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거리를 둡니다.
 - 잠시 뒤 살폈을 때 여전히 어미가 없지만 새끼들이 모여 잠들어 있다면 어미가 다녀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양이가 무기력하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귀, 발, 배가 차가운 경우, 잇몸과 혀가 창백한 경우, 눈곱과 콧물이 얼굴에 굳어있는 경우,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경우 등은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고양이 입양 전 셀프 체크리스트



-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있었나요?
 - 본인이나 가족에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털 빠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양육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세요.
- 고양이 양육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나요?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반려묘 양육비용은 약 13만 8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료비, 치료비, 각종 물품 구입비 등이 지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세요.
 - 고양이가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냥놀이와 주인과의 교감을 위한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 고양이를 키우기 적절한 환경인가요?
 - 기존에 이미 반려동물이 있다면, 합사를 대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특히 알레르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양해 주세요.
- 동물사랑배움터 ‘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시청하셨나요?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는 반려묘 양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입양 전, ‘동물보호복지 대국민교육 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임시보호와 입양을 기다리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묘를 키울 예정이라면, 동물보호센터 입양도 적극 고려해주세요!
- 고양이를 반려묘로 입양하였다면, 그 후에는 파양하거나 유기하면 안됩니다.



동물사랑배움터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VI

VI. 갈등 및 학대 대응

1. 길고양이 돌봄 관련	48
1) 밥자리를 자동차 근접한 곳에 마련한 경우	48
2) 고양이 집으로 인한 화재 발생	49
3) 밥자리 청소 미비	49
4) 배설물 문제	50
5) 고양이의 습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50
2. 돌보미 위협, 동물학대 관련	53
1) 돌보미 협박 및 폭행	53
2) 돌봄 자제 요청	53
3) 길고양이 학대	54
4) 독극물 살포	54
5) 길고양이 학대 영상, 경험 인터넷 공유	54
6) 길고양이 위협	55

VI 갈등 및 학대 대응

1 길고양이 돌봄 관련

1) 밥자리를 자동차 근접한 곳에 마련한 경우

Q 겨울이라 고양이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머무르고 따뜻한 차량 보닛 위에 자주 올라가니 지하 주차장에 밥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중 몇 명이 저 때문에 차 보닛에 고양이 발자국과 흙집이 생겼으며 피해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A - 돌보미가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해당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거나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차량 근처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 돌보미는 길고양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돌보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돌보미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공터 등에서도 고양이에게 밥을 급여할 수도 있음에도 차량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곳에 식기를 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돌보미는 주차장에서 밥을 주는 행위가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고양이 집으로 인한 화재 발생

Q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옆 빈터에 길고양이 겨울집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워서 스티로폼과 헨 옷만으로는 고양이들이 겨울을 나기 힘들 것 같아 골판지 재질의 고양이집 바닥에 열선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선 위에 계속 헨 옷을 덮어 놓으니 가열돼 고양이 집에 불이 났고 불이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번져 집 두 채가 훼손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 추운 겨울일지라도 길고양이 집에는 단열재와 지푸라기 깔짚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니 길고양이 집에 전기형 난방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길고양이의 집에 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과열되는 등의 이유로 불이 난다면 이웃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집의 화재로 타인 소유의 주택 및 물건 등을 소훼하는 경우 형법 제170조에 따른 실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3) 밥자리 청소 미비

Q 저는 길고양이 돌보미입니다. 최근에 제가 길고양이 밥을 주는 곳에 새로운 고양이 나타났는데 기존에 있던 고양이의 텃세에 밀려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아 밥이 든 밥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도 와서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치우지 않은 밥그릇 때문에 아파트가 더러워지고 벌레들이 꼬인다며 주민들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고양이 밥그릇을 치우지 않은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 사료 급여 후 일정 시간 내 치워야 하나, 먹이 및 밥그릇을 그대로 두어 위생관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밥그릇을 세척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여 밥을 제공한 후 빈 그릇을 방치하거나 밥그릇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혹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보미는 길고양이가 최대한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치워주어야 합니다.

4) 배설물 문제

Q 저희 동네는 아이들 모래 놀이터와 공원이 함께 있습니다. 한적한 장소라 근처에 길고양이 밥자리를 마련했고 겨울집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밥자리 근처에서 제가 고양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공공 보건에 위해가 된다며 저를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A - 일반적으로는 길고양이의 배설 행위는 자연현상으로, 돌보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돌봄 행위를 하는 장소 근처의 배설물은 치워주는 등 위생관리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래 놀이터 근처에 길고양이 밥자리와 쉼터를 마련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길고양이가 옮길 수 있는 질병이 많지는 않으나 배설물을 통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전염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5) 고양이의 습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Q 자동차 주변에 밥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고양이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차량 주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량 아래나 주위를 피해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고양이 습성 때문인지 제가 돌보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 올라가 흠집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부주의때문이 아닌 고양이가 갖고 있는 습성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유형은 돌보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길고양이의 생활(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상황이므로 돌보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같이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Q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스스로 강추위를 피해 지하 전력실에 들어갔다가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공급이 수 시간 동안이나 중단됐다가 복구되었고 정전으로 가스도 끊겨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몇몇 입주민들은 저희 아파트 길고양이 돌보미를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한 입주민이 다른 길고양이를 지하실에 가둔 채로 문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고양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하실 문을 폐쇄한 입주민을 동물학대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A - 길고양이 돌봄 행위와 길고양이가 전력실에 들어가 정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돌보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지하실을 길고양이를 죽일 의도인 고의로 폐쇄 조치하여 고양이를 갇혀 죽게 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VS 길고양이 겨울집

◎ 겨울에 길고양이가 지하 주차장이나 보일러실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집을 외부에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설치물인 만큼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겨울집을 지하실에 두는 것은 차량, 감전 사고를 더 유발시키므로 고양이에게 위험하기도 하므로 부적절합니다.

- 겨울집을 설치한다면, 겨울 동안만 설치하고 2월 말에는 반드시 철거합니다.
- 겨울집 내부에 담요나 수건 등을 깔되, 축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 너무 크거나 지저분한 겨울집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덧대기, 증축은 삼가 주시고, 악취 예방을 위해 청소해 주세요. (청소 시 마스크, 장갑 착용)
- 지역사회의 이해를 받는 데에는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한 길고양이 겨울집

<겨울집에 붙일 안내문 예시>

이 공간은 길고양이 겨울집입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울이 지나는 대로 수거하겠으며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 돌보미 위협, 동물학대 관련

1) 돌보미 협박 및 폭행

Q.1 저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어떤 분이 고양이 밥자리 주변에 저를 협박하는 문구가 적힌 종지와 함께 학대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진을 10여 차례 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한 주민이 심한 욕설을 하며 저를 벽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충격으로 집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Q.2 저희 동네에도 제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마다 나와서 고양이에게 밥 주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저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십니다.

A - 길고양이 돌봄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돌보미를 협박, 폭행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57조에 의한 상해죄, 제260조에 의한 폭행죄에 해당되어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돌봄 자제 요청

Q 저는 길고양이 때문에 시끄럽고 주변이 지저분하니 먹이를 주지 말라는 돌봄 자제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 고양이를 돌보는 행위가 불법도 아닌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니요. 이런 행위도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 길고양이 돌봄 자제 요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요청을 하면서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길고양이 학대

Q 저희 옆집에 언제부턴가 길고양이가 나타나 병아리와 닭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집 아저씨가 철제로 만든 고양이 덫을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한 후, 우리에게 가두고, 각종 도구로 길고양이를 학대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키우던 맹견 우리에게 고양이를 던져서 고양이가 개에게 물어뜯겨 죽도록 했습니다. 옆집 주인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독극물 살포

Q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자주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카페 정원에 고양이가 축 늘어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양이 밥그릇에 제가 평소에 주던 먹이와는 다른 것들과 하얀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길고양이를 없애기 위해 먹이에 일부러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 독극물을 섭취한 길고양이가 죽음에 이르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의 동물학대에 해당되고,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길고양이 학대 영상, 경험 인터넷 공유

Q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고양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찍어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친구들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도 비슷한 영상을 전달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며 영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하라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A -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하거나 학대 갤러리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되며 동법 제97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재하기만 해도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길고양이 위협

Q 식구들과 동네 천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어떤 분이 길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려고 우산을 휘둘렀습니다. 고양이가 놀라 근처 있던 대피소로 피하자 그 분은 우산으로 대피소를 몇 차례 가격했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도망가자 또다시 고양이를 폭행하려고 우산을 휘두르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하지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고 그걸 본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소리를 질러주어서 그 분은 고양이 쫓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고양이가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도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A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의 판례를 종합해 봤을 때,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이에 버금갈 정도로 동물의 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혹은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는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포함되지만(제2조 제9호),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에서는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길고양이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는 않고 위협만 줌으로써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금지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VII

VII. 참고 자료

- 1.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58
- 2. 길고양이 주요 질병 59
- 3. 참고문헌 61

VII 참고 자료

1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 고양이 할퀴병

- 바르토넬라 균에 감염된 고양이가 핏자국이나 물었을 때 전파됩니다. 몸이 약해진 상태일 경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피부사상균증

-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 질병으로 감염된 동물 또는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어 돌봄 활동 시 장갑을 끼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SFTS 바이러스 보유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또는 감염된 개와 고양이의 혈액과 접촉 시 발생합니다.

■ 톡소플라스마증

-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고양이의 배설물과의 접촉 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노약자, 임산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광견병

- 고양이는 야생동물과의 싸움을 통해 야생동물이나 개로부터 광견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길고양이 주요 질병

■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 감염된 고양이의 배설물, 체액과의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고열, 구토, 설사, 혈변, 탈수, 심한 경우 운동 실조 증세를 보입니다.

■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 감염된 고양이의 콧물, 타액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코와 기관 염증, 재채기, 콧물, 발열, 결막염 증상을 보입니다.



■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

- 감염된 고양이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고양이가 접촉했던 물건, 음식, 사람의 손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재채기, 콧물, 발열, 결막염, 구내염, 식욕 부진, 폐렴 증상을 보입니다.



■ 고양이 클라미디아 감염증

- 감염된 고양이의 눈곱, 콧물, 분비물, 배설물과의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재채기, 기침, 결막염, 끈적한 노란 눈곱이 생깁니다.

■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증

- 상호 털 고르기 (타액)를 통해 전염됩니다. 빈혈, 신경학적 질환, 출혈성 장염 등이 나타납니다.

■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 감염된 고양이의 배설물, 타액과의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대부분 무증상 또는 일시적인 설사 및 구토를 나타내지만, 10%는 고열과 설사, 복부, 눈, 신장, 뇌 등에 염증, 복수가 나타납니다.

■ 고양이 면역결핍증

- 물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무기력감,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열감, 림프절 확장, 잇몸염, 비염, 결막염, 만성 농양, 피부 문제 등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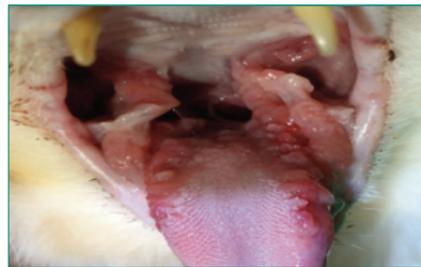
■ 귀 진드기 감염증

- 귀 진드기 기생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량의 검은색 귀지가 생기고 머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 만성 치은 구내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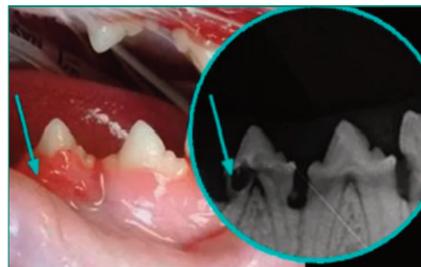
- 감염성은 아니며 혀의 종창, 식욕 부진, 식욕 감소, 악취 등이 나타납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 교실)

■ 치아 흡수성 병변

- 치관의 에나멜질, 치근의 시멘트질 손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구강 통증, 혀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출처: © 2023 Veterinary Dental Center)

3 참고문헌

-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 연구 용역. (2021). 경기도
- Aguilar, G. D., & Farnworth, M. J. (2013).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unmanaged cat colonies over a 20 year period in Auckland, New Zealand. *Applied Geography*, 37, 160-167.
- Alley Cat Allies. "What about Complaints?" Managing Communications When Your Shelter Adopts a SNR or TNR Policy.
- Alley Cat Allies. (2006). Bringing Feral Cat Populations Under Control: Targeted Trapping. *Feral Cat Activist*.
- Barratt, D. G. (1997). Home range size, habitat utilisation and movement patterns of suburban and farm cats *Felis catus*. *Ecography*, 20(3), 271-280.
- Edwards, G., De Preu, N., Shakeshaft, B., Crealy, I., & Paltridge, R. (2001). Home range and movements of male feral cats (*Felis catus*) in a semiarid woodland environment in central Australia. *Austral Ecology*, 26(1), 93-101.
- Fieberg, J., & Kochanny, C. O. (2005). Quantifying home-range overlap: the importance of the utilization distribution. *The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69(4), 1346-1359.
- Foley, P., Foley, J. E., Levy, J. K., & Paik, T. (2005). Analysis of the impact of trap-neuter-return programs on populations of feral cat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27(11), 1775-1781.
- Goltz, D. M., Hess, S. C., Brinck, K. W., Banko, P. C., & Danner, R. M. (2008). Home Range and Movements of Feral Cats on Mauna Kea, Hawaii? i. *Pacific Conservation Biology*, 14(3), 177-184.
- Gunther, I., Hawlena, H., Azriel, L., Gibor, D., Berke, O., & Klement, E. (2022). Reduction of free-roaming cat population requires high-intensity neutering in spatial contiguity to mitigate compensatory effec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9(15), e2119000119.
- Harper, G. A. (2004). Feral cats on Stewart Island/Rakiura. DOC science internal series, 174.
- Ireland, T., & Neilan, R. M. (2016). A spatial agent-based model of feral cats and analysis of population and nuisance controls. *Ecological Modelling*, 337, 123-136.

- Kmecová, N., Weissová, T., & Vdovíaková, K. (2016). Behaviour problems of cats reared individually or in coexistence with other animals (cats, dog). *Folia Veterinaria*, 60(4), 58-62.
- Kortis, B. (2013). *Neighborhood Cats TNR Handbook*. Neighborhood Cats.
- Liberg, O., Sandell, M., Pontier, D., & Natoli, E. (2000). Density spatial organisation and reproductive tactics in the domestic cat and other felids. *incollection*, 119-148.
- McGregor, H. W., Legge, S., Potts, J., Jones, M. E., & Johnson, C. N. (2015). Density and home range of feral cats in north-western Australia. *Wildlife Research*, 42(3), 223-231.
- Mirmovitch, V. (1995). Spatial organisation of urban feral cats (*Felis catus*) in Jerusalem. *Wildlife Research*, 22(3), 299-310.
- Nutter, F. B. (2005). Evaluation of a trap-neuter-return management program for feral cat colonies: Population dynamics, home ranges, and potentially zoonotic diseas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Ogan, C., & Jurek, R. (1997). Biology and Ecology of Feral, Free-Roaming, and Stray Cats Pp. 87-91. *Mesocarnivores of Northern California Biology, Management, & Survey Techniques, Workshop Manual*, Humboldt State Univ., Arcata, CA,
- Recio, M. R., & Seddon, P. J. (2013). Understanding determinants of home range behaviour of feral cats as introduced apex predators in insular ecosystems: a spatial approach. *Behavioral Ecology and Sociobiology*, 67, 1971-1981.
- Šálek, M., Drahníková, L., & Tkadlec, E. (2015). Changes in home range sizes and population densities of carnivore species along the natural to urban habitat gradient. *Mammal Review*, 45(1), 1-14.
- Schmidt, P. M., Lopez, R. R., & Collier, B. A. (2007). Survival, fecundity, and movements of free-roaming cats. *The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71(3), 915-919.
- Spotte, S. (2014). *Free-ranging cats: behavior, ecology, management*. John Wiley & Sons.
- Tan, K., Rand, J., & Morton, J. (2017). Trap-neuter-return activities in urban stray cat colonies in Australia. *Animals*, 7(6), 46.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